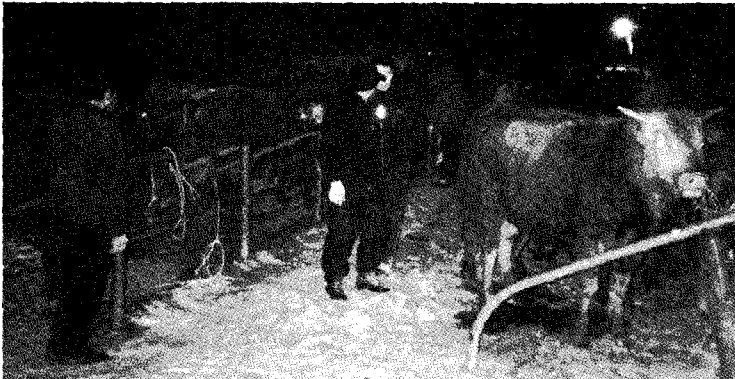




특 집

소 산업의 붕괴 초임기에 놓여 있다

홍 보 실



소들로 넘치는 가축시장, 그러나 거래는 한산하다.

낙농육우산업의 최대 위기 도래

IMF 한파로 낙농육우산업은 한 치앞을 내다 볼 수가 없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때보다도 더 엄청난 충격파로 여기저기서 낙농육우 농가들의 비명소리가 드높기만하다.

낙농육우산업이 이렇게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인데도 별다른 대책하나 없는 가운데 작금의 외환위기가 해결되어 환율이 떨어지고 국가경제가 호전되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IMF한파로 축산인들이 누구보

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축산업의 경우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때문이다. 이와같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의 원료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환율폭등의 여파로 수입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사료업체는 경영압박을 이유로 배합사료 가격을 50%가까이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외상거래가 관행처럼 되어오던 사료대를 현금거래로 바뀌었으며 또 현금을 주고도 구입마저 어려워 소를 굶겨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었다.

사료값 부담과 구입난 심화는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폐업과 도산이 이어지면서 홍수출하와 가축투매 현상으로 소값은 폭락하여 낙농육우산업의 생산기반 붕괴마저 초임기에 놓여있다.

생사의 기로에선 낙농육우산업 생산 현장에선 농가들의 절규의 소리는 외부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소들로 넘치는 가축시장

1월23일 오산 가축시장은 영하의 차가운 겨울바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5시부터 모여든 400여두 소들이 개장시간인 6시가 되니 넓은 우시장은 가득 메웠다. 언뜻 보기에는 팔리는 농가와 사려는 상인의 줄다리기와 이를 중간에서 조정하는 중개인의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수원축협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오산 우시장은 다른지역 우시장과는 달리 서울 등 대도시의 상인들이 직접 소를 구입 도축 판매하는 사람

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 큰소가 거래되고 있다. 평균 300~400여두 출하되어 약 80%가 거래되는데 23일은 설 대목을 앞두고 있어 팔려는 농가와 사려는 상인들이 더 많이 찾아와 북적대고 있었다.

이날의 거래가격은 평균 1kg당 4천원~4천200원에 매개 되었는데 이는 500kg 한우 큰수소가 200만원~210만원으로 정부의 수매 가격인 240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가격으로 소값이 얼마나 떨어졌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한우 20마리의 비육과 논 몇 마지기를 짓고 있다는 이모씨(화성군 태안읍)는 설 특수를 겨냥해 키운 500kg 안팎의 한우수소 5마리를 가지고 나와 kg당 4100원씩 팔았다며 이씨는 110만원의 송아지 구입비와 사료비 100만원에 약품대 및 수의사비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마리당 40~50만원의 적지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혈값에 팔 수 밖에 없는 처지는 최근 폭등한 배합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으며 팔아야만 사료를

구입하여 다른 소라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살이 잘 찢 암소 두마리를 가지고 나온 유모씨(화성군 봉담면)는 상인과의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kg당 4200원에 판매 하고 있었는데 유씨는 사료비는 들쭉하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잔값이라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 마리만 팔아도 되었는데 이제 두 마리를 팔아도 등록금이 부족 것 같다는 비애적인 뉘즈리와 함께 어두운 밤하늘에 대고 긴 한숨을 내쉰다.

오산 우시장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큰소만 거래되며 대도시의 상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구입하기 때문에 잔가격이라도 거래가 활발하지만 서산한우축협 김중산상무의 말에 의하면 서산 우시장의 경우 출하한 소의 절반도 매매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서산우시장의 송아지의 가격은 수송아지가 650,000원, 암송아지가 50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IMF한파 이전보다 20~30만원이 하락한 가격이다.

도축자에서도 4~5일씩 기다려 도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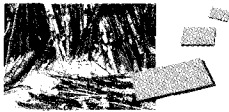
사료값 및 각종 원자재값은 폭등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값은 폭락하여 폐업과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육우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느낀 농가들의 소 투매가 이어지면서 12월 20일 축협서울공판장 주변에는 소를 실은 트럭들이 안뒀할 것 없이 짹짹 들어차 있었다.

축협공판장에 따르면 축협서울공판장의 계류 및 도축 능력은 일일 평균 350두에 불과한데 축협공판장에만 하루 평균 1300두 이상이 반입되어 1000두 이상은 소가 트럭에서 4~5일씩 기다려야 도축할 수 있다며 최근 농가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흥수출하는 농가들도 손해가 많으며 출하를 자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축산전문가들에 의하면 소가 4~5일씩 트럭에서 도축을 기다릴 때 거의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두당 약 50kg의 감량, 스트레스 등에 따른 등급저하, 운송비 및 인건비 추가 부담 등으로 두당 30만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의 길도 4~5일씩 기다려야 하는 불쌍한 우공들



IMF시대의 낙농육우산업 생존전략

특 집

남아있는 소들의 사료값 마련을 위해서 다섯마리의 한우를 살고 왔다는 김모씨(경기도 양평군)는 4~5일을 기다려야 도축 한다하니 소는 소대로 감량되고 운송비에 인건비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를 성토했으며 빠른 대책을 촉구하였다.

젖소 도태우의 경우 더욱 헐값이어서 도축장에서 4~5일씩 대기하다보면 30만원도 채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다. 전북 군산에서 낙농을 하고있는 황무택씨는 얼마전 사료비도 부담도 덜겸해서 유량이 적은 젖소 도태우를 계통출하했는데 22만원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축산물 도매시장을 늘리든지 지역적으로 출하물량을 상호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농가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가들도 사료비는 부담이 되지만 도축장에서 4~5일씩 기다리게 되면 손해가 더욱 클수도 있는 만큼 출하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소값은 폭락했어도 매기조차 없어

서울과 경기도 구리, 남양주 등에서 한우전문판매점과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며 현재 경기육우회장을 맡고있는 황도정씨는 회원농가들을 방문하여 소를 구입할 때에 주위에 있는 한우농가들로부터 우리 집 소도 사달라며 통사정하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요즘은 소값이 폭락했어도 농가에는 소 장사도 다니지 않는 등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농가들은 사료값 폭등에 따른 사료비 부담과 또한 현금 없이는 사료를 구입할 수도 없으므로 사료값 마련을 위해 헐값이라도 소를 시장이나 도축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어 우시장이나 도축장의 만원 사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우사육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황회장은 작년에도 한우 불황으로 암소도축이 크게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IMF한파로 전망이 더욱 불투명 해짐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소산업에서 발을 빼려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송아지, 암소, 수소할 것없이 홍수출하되고 또한 마구잡이로 도축되고 있어 한우기반 자체가 무너질까 크게 염려 된다고 한다. 특히 부업형인 10두미만의 번식농가들이 폐업과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암소가 많이 도축되면 그동안 과잉 되었던 소마리수가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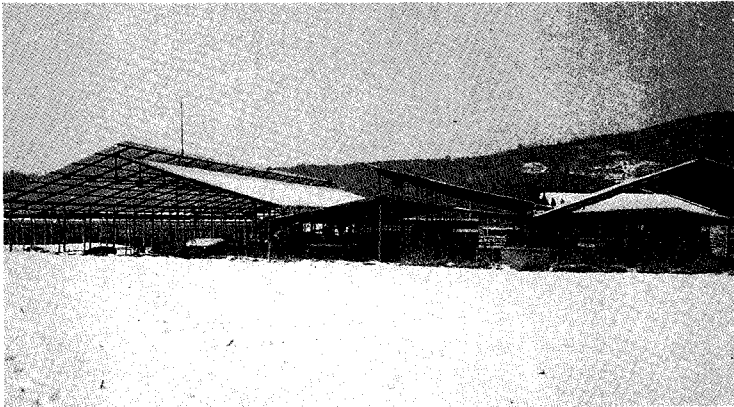
들어 소값이 상승하여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 하는데 황회장은 한우 사업은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몇 년이 걸리는만큼 그 사이에 무너진 한우기반을 수입최고기가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2001년부터는 수입되는 소가 메꾸어 나갈 것이라 한다.

또 하나는 환율상승이 수입최고기 원가를 높여 국내산에 대비 1.3~1.5배로 2000~3,000원의 격차이므로 육질과 신선도에서 앞서는 국내산을 먹지 않겠나 하지만 현재 사료값 파동으로 그동안 닭아 놓은 고급육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그동안은 거세를 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소값 하락에 따른 암소 도축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잃었으며 최근에는 사료 파동으로 사료가 없어 소를 굶기는 판에 한우 브랜드육이라하면 600kg 이상 시육돼야 하는데 그 많은 사료비를 어떻게 부담하면서 고급육을 생산할 농가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황회장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를 볼 때 경기가 좋고 값이 좋을 때는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품질위주로 구입하지만 요즘 같은 불



한우매장은 1/3, 식당은 절반이 IMF한파로 판매가 줄었다고 황회장은 말한다.



낙농 전업화를 위해 융자와 빔을 얻어 시설투자를 했지만 낙농불황으로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에는 품질보다는 값이 싼 것을 찾고 있다고 한다.

한우매장은 1/3, 식당은 절반이 판매가 줄었다.

황희장은 한우전문판매장과 식당을 겸업하고 있는데 IMF한파로 매장은 1/3, 식당은 절반이 판매가 줄어 들었다고 한다.

쇠고기는 특성상 연말과 명절을 때가 평상시보다 몇배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연말은 이미 망쳤으며 다가오는 설 특수라도 기대하며 준비를 많이 해 놓았는데 걱정이 많다고 한다.

앞으로 경기는 더욱 위축되고 실적자는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쇠고기 소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한우산업 전망은 아주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떨어지는 소값과 무너지는 사육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소수매 확대 실시, 송아지 생산 가격 안정제 조기실시,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지원대책, 국내 조사료의 생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어 농가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야 하겠다.

다음은 낙농가의 실정을 알아보

고자 충북 옥산낙협영농조합과 경기도 해태 발안낙우회를 방문하여 보았다. 낙농가의 실정은 한우농가 보다는 참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젖소 송아지 가격은 수정료도 안돼

현재 젖소 초유떼기 송아지 한 마리가 5~1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는 1회 수정료가 25천원~3만원으로 보통 2회 해야 하므로 송아지 한 마리가 가격이 전액 들어가는 실정이다. 여기에 난산이라도 있어 수의사라도 부르게 되면 최소 5~10만원이 추가되므로 완전 적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농가 들은 아예 소가 발정이와도 수정을 시키고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송아지 가격이 낮으면 거래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거래가 없으며, 또한 큰젖소 가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착유우는 70~80만원, 도태우는 20~3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도저히 현재의 젖소 가격으로는 낙농경영의 수지를 맞출 수가 없었다.

원유 18.4% 인상은 농가 경영난 해소엔 크게 미흡

원유 가격이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평균 18.4%가 인상되었다. 매번 원유 가격이 5%이하로 인상된 것에 비하면 과격적이라며 협회의 활동과 노고에 치하 하면서도 낙농가들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폭등에 비하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이구동성이다.

실제로 배합사료 가격은 환율 1.400원을 기준하였고 원유 가격은 1.250원을 기준해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원유 가격은 95년 이후 동결되었으니 이 기간인 3년동안 소비자 물가가 20%이상 상승한 것만 비교해도 원유가격은 20%인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유가가 말만 18.4%인상이지 그동안 업체에서 냉각보조비이나 유질개선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 실제 원유가의 인상은 10%내외에 불과하다.

옥산낙협의 정해승씨는 착유우 25두(평균유량 25kg), 육성우 25두 사육하고 있는데 사료값이 오르기 전에도 최소한의 시설 투자비, 농기계이용료, 토지임대료를 갚고 나니 1년에 500만원의 적자였다며 IMF 사태로 50%의 사료값 인상과 각종 부대비용이 인상된 상태에서는 적자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어서 도저히 낙농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회원농가들 중에는 정부의 융자도 받고 빔을 얻어 시설투자를 한 후 최근에서 소 마리수를 한참



IMF시대의 낙농육우산업 생존전략

특 집



IMF사태에 앞으로 낙농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옥산낙협 회원들



현재 낙농은 적자로 목장이 모두 망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김용무회장

늘려가는 판에 사료값 인상에 용자 금 상환까지 겹쳐 땅을 내농은 농가 도 있다는 것이다.

폐업과 도산으로 회원이 절반도 안남았다.

옥산영농조합 정만호회장은 처음 인가를 받을 때 57명이던 회원이 그동안 낙농불황으로 36명이 남았는데 최근 IMF한파로 다시 8명이 폐업하여 현재 28명이라며 이와같은 위기가 계속된다면 아마 회원의 절반도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해태발안낙우회 역시 80년 중반에는 840 농가를 둔 거대한 조직이었으나 10여년 세월동안 계속 줄어 97년 160농가였는데 일부가 타유업체로 옮기기는 했으나 폐업과 도산이 속출하여 98년 1월 현재 회원 60여 농가만 남아 있는데 이마저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김용무회장의 말한다.

목장을 하면 할 수록 적자이며 빚만 늘어 난다

「현재 낙농상황은 송이지값 5만원, 도태우값 20만원 거래되고 있는데 만

약 죽은 소가 생기면 15~20만원 드려 물어야하는 실정입니다. 소값은 이렇게 폭락하였고 사료값은 50%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또다시 인상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반해 원유값은 18.4% 인상에 그쳤습니다.

정부에서는 벧짚등 부존자원을 이용하러지만 이미 겨울이고 벧짚도 8톤 한차에 55만원하던 것이 현재 80만원을 합니다. 또한 사료작물을 많이 파종하러지만 연맥 20kg 한포에 11천원에서 22천원으로 옥수수수는 120천원에서 188천원으로 10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목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장을 하면 할 수록 적자이며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낙농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목장을 30년을 넘게 하여왔지만 최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며 김용무회장은 하루빨리 무슨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낙농은 모두 망한다고 경고를 하며, 이같은 상황인데도 영세율 적용시킨지 1년도 안된 사료부가세 영세율을 환원시킨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한심

할 뿐이라 한다.

83년부터 15년째 낙농을 하고 있다는 이강현씨는 총두수 42두중 착유우 22두에서 일일 380kg 우유를 생산하여 한달에 유대가 평균 600백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 배합사료 한 차에 1,212천원씩 계산하여 한달에 3차 반을 급여하므로 사료비 4,242천원을 빼고나면 남은 금액은 1,758천원이다. 이돈을 가지고 조사료, 약품, 수정료, 진료비, 전기세 등과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남은 것은 한 푼도 없고 반대로 빚만져 현재 농협에 4천5백만원의 빚을지고 있다고 한다. 이강현씨의 목장의 실례에서 보듯 낙농을 하면 할 수록 적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우산업도 낙농산업도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낙농육우농가들의 폐업과 도산이 번지고 있으며, 이는 곧 그동안 어렵게 닦아놓은 식량산업인 낙농육우산업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루빨리 안정대책이 나와서 생명산업인 낙농육우산업을 지켜야 하겠다. (☺)

〈취재 : 김봉석〉